정조의 경학 이해와 정치의 문제*

백 민 정**

1. 머리말: 정조시대 문헌 편찬과 의미

2. 정조의 경학관: 經史一致에 기반한 실천지향

3. 『弘齋全書』 經史講義와 君師論의 함의

4. 朱子一統之書 구상: 道統과 中華主義 문제

5. 맺음말: 학술논쟁과 정치(政)의 의미

1. 머리말: 정조시대 문헌 편찬과 의미

국왕 정조(正祖:1752-1800)의 개인문집『弘齋全書』에 수록된『群書標記』를 보면 당시 문헌 편찬의 정황과 규모, 구체적인 목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정조 시대에는 150여 종 이상 4천여 권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문헌을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조가 직접 주관해서 편찬한 御定書만도 2천 권이 넘고, 규장각과 홍문관 관원을 비롯한 왕의 최측근 관료들이 분담해서 편찬한 命撰書를 포함하면 4천여 권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1 여기에는 정조의 개인문집『弘齋全書』 184권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알려진 것처럼 『홍재전서』에는 시문집,『經史講義』,『審理錄』,『日得錄』등 정조의 학문적, 정치적 견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독창적인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정조의 문집 가운데 특히 『經史講義』는 정조의 경학적, 철학적 입장을 좀 더 면밀히 엿볼 수

^{*} 본 연구는 201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¹⁾ 김문식, 2000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해석사, 29면, 33면 참조함.

있는 중요한 전거라고 할 수 있고, 『大學類義』의 구성과 편찬을 통해서는 경세가, 정치가로서 정조의 실천적 면모를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작품에 반영된 정조의 관점과 의미,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정조 시대는 활자의 주조와 서적 인쇄가 활발 했던 때였다^{.2)} 활자와 서적 인쇄 기술에 힘입어 엄정하게 정리한 경전 원문과 다양한 선본들. 주자서와 교화서를 편찬해서 서울과 지방 감영, 각지의 향교와 서원 등에 수시로 배포할 수 있었다. 정조대 편찬된 주요한 문헌들의 성격을 살 펴보면, 우선 일체의 주석을 배제하고 經書 원문만 정리해서 편찬한 것이 있는 데 『經書正文(三經四書正文)』이 이에 해당된다. 경전과 주석을 함께 수록한 경 우에도 경문과 주석의 위상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도록 편집에 차등을 두었다. 정조는 경문을 인용할 때 원문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 대조함으로써 정본 편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³⁾ 명나라 영락연간에 편찬된 『四書五經大全』이 유행한 이후 경문의 오탈자가 그대로 답습되는 것을 우려했던 정조는 『大學類義』편찬 시에도 오탈자를 정확하게 바로잡도록 교감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처럼 경학 문 헌의 정본을 마련하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정조는 양질의 選本을 편찬하려고 노력했는데『五經百選』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책은『주역』、『상서』、『시경』、『춘 추』. 『예기』의 오경 가운데 가장 긴요한 대목 100여 곳을 선별해 편찬한 선본이 다. 정조는 경전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했던 朱子書의 다양한 선본 마련에 박차 를 가했다. 『朱子大全』과 『朱子語類』만 해도 총 261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 라서 초학자들이 주자학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정조는 『朱子大全』을 요 약한 『朱子會選』, 『紫陽子會英』, 『朱文手圈』을 만들었고, 『朱子大全』과 『朱子語 類。의 핵심 구절을 뽑아 정리한『朱子選統』、『朱子書節約』, 주자 서신을 선별한 『朱書百選』 시문집을 선별한『雅誦』등을 편찬했다.4)

²⁾ 위의 책, 14-18면;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166-173면 참조. 이에 따르면, 각종 문헌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규장각에서 먼저 활자본으로 인쇄한 다음 각지의 배포처에 책을 보급했고, 지방 감영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飜刻한 목판본을 만들어서 향촌에 다시 배포하였다.

³⁾ 정조시대 경학 문헌들, 특히 正本과 選本의 편찬과정 및 의미에 대해서는 김문식, 2000 위의 책, 81-123면; 김문식, 2007 위의 책, 173-180면을 참조할 수 있다.

정조는 주희의 집전, 집주, 장구, 통해, 혹문 등 모든 서적을 수합하여 이른바 朱子一統之書[一通之書]를 편찬하려는 포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또한 『朱子大全』과 『語類』. 그 밖의 朱夫子의 손에서 나온 片言隻字까지 한데 모아 하 부의 全書로 편집하려고 한다."5) 정조는 전서 편집이 완성되면 주합루 곁에 별실을 마련하여 주부자의 眞像을 봉안하고 전서 板本을 보관하려는 의지 를 피력했다. 정조 자신이 주자를 정성으로 師事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17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서의 편찬 작업은 알려진 것처럼 정조의 급서 로 인해서 구상만으로 끝나버렸다. 위의『실록』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조 가 20여 년에 걸쳐 다수의 주자서 選本을 만들고 말년에 완벽한『주자전서』까지 기획한 것은 유학의 정통, 즉 道統이 삼대 성왕과 공자, 주자를 거쳐서 자신에게 계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주자전서』의 완간 계획은 오늘날 유학의 집대성자가 바로 다름 아닌 정조 자신임을 보임으로써 유학의 도 통과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결작업이었다. 정조는 노론이 연루된 패관 문체와 남인이 연루된 西學 문제를 대치시키면서 正學. 즉 올바른 학문을 강조 했는데. 이곳에서 정조가 邪學을 불식하기 위해 강조한 정학은 말할 것도 없이. 주자학이었다. 정당한 권력운영과 정치를 위해서도 정조는 정학을 수립,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4) 『}正祖實錄』48, 22년 4월 19일 첫 번째 기사 "소나무 충해의 제거를 명하고, 奴貢의 폐단과 본인이 찬술한 서적에 대해 언급하다." 이곳에서 정조는 20세 이후 자신의 주자학 공부 내력과 주자서 선본의 편찬과정을 다시 설명한다.

^{5) 『}正祖實錄』 48, 22년 4월 19일 위의 첫 번째 기사 참조.

^{6) 『}弘齊全書』165, 『日得錄』5,「文學」5. 정조는 마테오 리치, 서학의 유행과 폐해를 언급하며 정학의 선포가 왜 불가피한지 역설한다: "마테오 릿치[利瑪竇:Matteo Ricci]가 이른바 耶穌敎를 부르짖어 斯道를 좀먹는 해충이 되었으나, 우리나라만은 禮義의 나라로 사대부들이 공자와 맹자를 높이고 신봉하여 異端에 현혹되지 않았다. 근래 一種 邪學이마테오 리치의 설에 傳會하여 가르침을 손상시키고 인륜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해치는데, 그 화가 지극히 참혹하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제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설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論語』에서 일컬은 '제사를 지낼 적에는 先祖가 계신 듯이 하며 神에게 제사 지낼 때 신이 계신 듯이 한다'는 말씀은 장차 무시해버리겠다는 것인가? 이단을 물리치려면 正學을 붙들어 세우는 것보다 좋은 방도가 없으니, 이것이 오늘날 사대부들이 마땅히 두려워하며 힘써야 할 바다."

정조대 정본과 선본 작업이 기존의 서책을 재간행한 것이라면 『弘齋全書』는 정조의 고유한 식견과 독창적 견해가 잘 드러나는 작품을 수록한 국왕의 개인 문집이다. 특히 『경사강의』는 정조 문집의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경학 관련 56권의 저술 모음집이다. 알려진 것처럼 정조는 1781년에서 1798년 말년까지 경전과 역사서를 중심으로 열띤 학술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논쟁의 결과물이 위의 작품에 수합되었다. 규장각을 새로 정비한 이후 정조는 운영방침을 수록한 『규장각지』를 마련하였고, 『규장각지』의 규정에 근거해서 1781년부터 내각의 초계문신들을 선발하여 경사강의를 진행했다. 7) 정조는 오랜 시간 정성을 기울여서 직접 경사 강의의 문목들을 뽑았으며 수많은 시험답안들도 직접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1781년 『近思錄』과 『心經』에 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연이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주역』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정조의 경학적 입장과 정치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말년의 텍스트로는 1800년 봄 각신 金近淳과 정조가 『맹자』에 관해 문답한 내용을 수록한 『鄒書春記』, 초계문신 徐俊輔와의 『論語』 문답을 기록한 『魯論夏箋』(1800)이 있다. 『대학』・『중용』에 대해서는 각신 尹行恁과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曾傳秋錄』(1799)이 있다. 정조가 自序에서 밝혔듯이, 이는 주희가 鵝湖와 玉山에서 제자들과 경전에 대해 토론했던 내용을 훗날 『朱子語類』에 기록한 것을 염두에 둔 구상이었다.10) 필자가

⁷⁾ 정옥자, 1997 『조선후기문화운동사』, 일조각, 107-161면: 정옥자, 2001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사, 84-124면 참조. 한편 김문식, 2007 앞의 책, 243-277면; 한영우, 2008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 지식산업사, 74-95면의 상세한 설명도 참조할 수 있다.

^{8) 『}弘齊全書』166, 『日得錄』6, 「政事」1. 抄啓文臣捌設之後, 每當隆寒盛暑, 就當講之自止, 條錄問目, 使之在家條對. 嘗於盛夏熱日, 上親自閱卷, 竟日鈔錄, 或以聖人愼疾之戒進, 上曰, 予之初置抄啓文臣者, 意在勸課. 予若不躬先勤勵, 何以董飭諸文臣也. 且予之習性, 素喜此事, 雖終日鈔錄, 不知疲也.

⁹⁾ 정일균, 2012 『정조의 맹자론(1): 『鄒書春記』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23, 45-85면; 정일균, 2009 『정조의 논어론(1): 『魯論夏箋』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8, 223-247면 참조.

^{10) 『}弘齊全書』120, 『鄒書春記』卷1, 「自序」朱夫子平生精力,盡在四書. 而講說於鵝湖,玉山之間,聽之者往往興動,及與羣弟子言,言皆出入經傳,語類諸錄是耳. 顧予習性在經傳,自幼非經傳不讀,至白紛如也. 有能領悟予意者,每清燕多暇,討論經義,以自娛,庸追湖山盛事,鄒書商訂,即其一也,隨其問即答之,答輒書諸策,時當春晷,日以爲課,故名之以鄒書春記.

검토한 결과 공통점이 있었는데, 정조의 四書 이해가 『經史講義』와 위의 말년 작품들—『鄒書春記』・『魯論夏箋』・『曾傳秋錄』—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상이했다는 점이다.¹¹⁾ 경사강의에서 강원들에게 질문할 때 정조는 주자학의 관점을 벗어난 독창적 견해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문에 대해서 미심쩍은 점을 자유롭게 비판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¹²⁾ 이와 달리『鄒書春記』 등에서 문답 주체가 바뀌어 문신의 질문에 정조가 답변했을 때, 그는 유독 경전의 권위 그리고 주자학의 관점을 옹호하는 강경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18세기 후반, 이미 청나라와 일본을 통해 다양한 외국서적이 조선에 유입되었고 정조 본인이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¹³⁾ 주자학 밖에서 주자학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망할 만한 지적 흐름이 조성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조의 입장은 정학으로서 주자학의 가치와 정합성을 지키는 데 있었지 주자학의 위상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비판하는 데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⁴⁾

정조는 경학뿐만 아니라 경세학 차원에서도 제왕 혹은 군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大學類義』 편찬이 그런 의미를 잘 보여준다. 중국 삼대 이전은 제왕이 곧 스승인 君師의 시대로서 제왕이 도를 계승했으나 삼대 이후에는

雖深思奧義,不足以上繩考亭之隅坐言志,其於牖蒙發愚之資,庶幾有少補其翼.歲庚申閏吉. 萬川明月主人翁.

¹¹⁾ 필자는 몇 해 전 『홍재전서』 경사강의 중 『대학』, 『논어』, 『맹자』, 『중용』, 호락논쟁 등에 대한 정조와 각신, 근신들의 입장을 다룬 논문을 작성했는데 당시 분석에 근거해 평가한 것이다.

¹²⁾ 박성순, 2008 「정조의 사대부 인식과 그 특징」 『동양고전연구』 32, 114-118면. 주자학에 대한 정조의 이중적인 듯한 학문태도, 즉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옹호하면서도 비판적인 관점을 피력하고 당시 유행하던 신조류에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한 점은 다음 논문들에서 언급되었다: 안재순, 1990 『韓國近世史에 있어서 正祖의 統治哲學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69-73면; 김호, 2007 「정조의 속학 비판과 정학론」 『한국사연구』 139; 김인규, 2009 「홍재 정조의 학문관」 『온지논총』 23 등 참조.

¹³⁾ 정호훈, 2012 「『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知識 集成」『한국문화』 57. 위 논문은 당시 조선에 유입되거나 소개된 외래서적의 전체 규모, 특징, 동향 등을 상세히 정리해서 소개하였다.

¹⁴⁾ 이봉규, 2019 제12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움 발표문, 제6세션 "정조대 조선의 학술 지형 - 권력, 지식, 도서"에 대한 토론 요지, 2면 참조. 그는 정조가 주자학의 정합성을 추구했을 뿐, 주자학의 객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군주가 세습되면서 군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학자들만이 유학의 도를 잇는 小康 상태로 진입했다는 것이 당시 보편적 인식이었다. 정조시대에 이르러 국왕이 군사를 자임하면서 삼대의 이상정치를 복원했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우선 道統이 공자와 주자로부터 정조에게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 정조의 주자학 선양과 『주자전서』 기획도 이런 구상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어제서 편찬 실무자였던 서형수가 『군서표기』 범례에서 전하듯이, 정조는 삼대 이후 중국의 한당 시대에는 모범적 군사가 없었다고 보고서 『대학유의』 간행 때 이들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였다. 15) 국왕 정조의 역사품평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왕으로서 경세와 사공의 책임을 짊어진 정조에게 가장 중요한 작품은 『대학유의』였고 바로 이 점에서 당시 군신의 필독서로 간주되었다.

한편 대민 교화정책에서는 『소학』, 『오륜행실도』, 『향례합편』이 매우 중요했는데 사실 『향례합편』도 복잡한 향사례, 향음주례 등을 소개하고 있어서 지방관아의 관리, 유생 등 식자층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정조는 『의례』 13편이대부분 향촌의 사대부가 실천해야 할 鄕禮며, 향례를 통해 의례를 실천하고 의례를 통해 주례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60 향례가 백성을 교화하면서 주자학 이념을 사회 저변에 확산시킬 수 있는 핵심 기제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례합편』에서는 정조의 윤음과 총서, 본문에 향음주례, 향사례, 향약을 수록했고, 부록에 사관례, 사혼례 등을 수록했다. 『소학』 간행이 기존의 책을 재간행한 것인데 비해 『오륜행실도』와 『향례합편』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것이므로 이들 저작의 편찬과 간행에 정조와 군신들의 판단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0 『오륜행실도』 및 『소학』의 재간행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매우 유효했을뿐만 아니라 정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선왕의 유지를 받들고 그 업적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정조의 『오륜행실도』 간행은 세종과 성종 때 『삼강행실도』 간행을 계승한 것이다. 『행실도』는 『향례합편』과 마찬가지로 1797년 정

¹⁵⁾ 김문식, 2007 앞의 책, 155-156면 참조. 이에 따르면 정조는 한당 이후 중국의 제왕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이들이 없다고 보고 『대학유의』 「제왕위학지본」에서 이들의 기록을 삭제했다.

^{16) 『}弘齋全書』184, 『群書標記』, 命撰, 「親撰編校概略」, 『鄕禮合編』3권(1797).

¹⁷⁾ 김문식, 2000 앞의 책, 152면,

월 편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실도』 권수에는 1797년 1월에 반포된 정조 윤음이 수록되어 있다. "養老와 務農의 뜻으로 『소학』, 『오륜행실도』, (『향례합편』의) 鄕飲儀式, 鄕約條例를 반포하며 내린 綸音(養老務農領行小學五倫行實圖鄕飲儀式鄕約條例綸音)"이 바로 그것이다.¹⁸⁾

선왕의 업적을 이으려는 정조의 繼志述事의 치적은 『소학』 편찬과 재간행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9] 『영조실록』에 수록된 「영조대왕행장」을 살펴보면, 1744년 (영조 20) 『小學宣政殿訓義』(『小學訓義』)를 纂輯한 기록이 나타난다. [20] 영조는 유신들에게 하교하며 『소학』은 자신이 평생 奪信한 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 등록』을 보면 정조도 영조로부터 『소학』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내[정조]가 어려서 『소학』 공부를 마치고 經史를 읽고자 했을 때 선왕께서 하교하시길 '옛날에 小學童子라는 말까지 있었으니 여러 번 읽는 것이 좋다'고 했고, 다 읽으면 다시 읽도록 명하신 것이 이미 다섯 차례나 되었으니 心身에 큰 보탬이 되었다. 元子가 이미 『소학』을 읽었는데도 開講한 후 다시 강독하게 한 것은 선왕께서 나를 가르치신 遺意를 따른 것이다. [21] 정조는 『소학』 한권이면 '修身'에서 '治國平天下'가 실현된다고 호언했다. [22] 정조는 『소학』을 배움의 입문서가 아니라 육경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23]

^{18) 1797}년 정조 21년, 정월 초하루의 윤음으로『日省錄』과『弘齋全書』에도 재수록되었다.

^{19) 『}소학』은 영조와 정조시대, 주자학 학습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강조된 텍스트였다. 규장각소장 『소학』의 계통과 특징에 대해서는 정호훈의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정호훈, 2016 「규장각소장 『소학』의 系統과 특징: 조선에서의 간본을 중심으로」『한국문화』 74. 한편 『소학』을 평생의 함양공부의 전거로 이해하며 조선성리학의 개성을 밝힌 이봉규, 2010 「함양론과 교육과정으로 본 조선성리학의 개성』『퇴계학보』 128 참조함.

^{20) 『}英祖實錄』早록「英祖大王行狀」4. 二十年甲子春正月,纂小學宣政殿訓義,王謂儒臣等曰,小學一部,是予平生尊信之書也.予欲做世宗朝思政殿訓義,以音訓事實,與先儒姓名出處,分釋集解之下,以便觀覽也.於是蚤夜召儒臣,親自參證,旣成,示贊成朴弼周,重加校正,行于世.

^{21) 『}弘齋全書』164,『日得錄』4,「文學」4. 予於幼時, 讀小學訖工, 欲讀經史, 而先王敎曰, 古有小學童子之語, 屢讀爲好, 旣讀而又命更讀, 前後爲五次, 其爲益於身心, 誠不淺尠. 元子已讀小學. 而開講後更令講讀者, 蓋述先王敎子之遺意也.

^{22) 『}弘齋全書』163、『日得錄』3、「文學」3. 小學一部書, 卽可修齊治平而有餘裕.

^{23) 『}弘齋全書』164, 『日得錄』4, 「文學」4. 小學不可但以初學入德之門論. 編中所載, 無非聖賢精義之言. 且經朱子親自撰次, 其有補於爲學之方, 不下於六經. 先朝聖學. 專資於此書.

정조대에 편찬된 수많은 문헌들 가운데 군주의 제왕학과 관련해서는 『대학유의』가 가장 핵심적인 저작이었다면, 효과적인 대민교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 듯이 『오륜행실도』와 『향례합편』, 『소학』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위 저작들에 피력된 정조의 경세적 이상과 포부 밑바탕에는 『朱子大全』, 『朱子語類』 등 주자학 문헌 전반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와 『經史講義』에 드러난 치열한 경학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三經四書正文』과 『五經百選』 등 원전의 재발견과 선본 작업으로 쌓은 탄탄한 경학적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다.

2. 정조의 경학관: 經史—致에 기반한 실천지향

제왕학의 전거로 삼기 위해 정조가 『대학유의』(22권) 편찬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문헌의 편찬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정조는 경학과 경세학, 경학과 사학, 학문과 정치의 통일이 제왕학 텍스트인 『대학』의 편찬과 시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경전을 탐구하는 목적이 경전에 반영된 삼대 성왕들의 치적과 사업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당대에 경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경학 연구는 결국 경세학을 통해 완성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경전과 역사, 학문과 정치는 동근원적 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삼대 이전에는 經이 곧 史였고 史가 곧 經이었다. (…) 처음에는 敎學에 관한 책이 법령의 밖에서 따로 시행되지 않았다. 秦漢에 이르러 학문을 말하는 자는 법서를 가리켜 末務라 하고, 경제에 뜻을 둔 자는 儒家를 가리켜 迂闊하다고 했다. 전자는 體가 있으나 用이 없고 후자는 末을 따르나 本을 버린 것이다. 이때 經과 史가 처음으로 나누어졌고 治道의 성쇠도 여기서 결정났다. 오직 진덕수의 『대학연의』와 구준의 『대학연의보』가 학문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방안을 연계했고, 위로 경전훈고를 인용하고 옆으로 사적을 증명하여 고인이 불변의 경전과 가변의 역사를 날줄과 씨줄로 삼았던 뜻[經經緯史之義]을 잘 터득했다. 나는 평소 이 책을 탐독하던 중

大耊之齡,猶不輟誦讀,予在春邸時,仰承聖訓,輪回講習,不啻累十回.近來未聞有讀小學者,此亦正學日晦,俗習日乖之致.今行宣政殿訓義註釋,頗有可議,故方欲更加删補,印布于世.先令元子始學,春初已讀至善行篇. 詒燕之謨, 莫先於此矣.

나의 뜻에 부합하는 곳을 만날 때마다 비점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을 베껴 책으로 만들면 대략 10여 권이 될 것이다. 정치와 학문의 큰 규칙과 절목이 아마도 이곳으로 나가면 빠뜨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²⁴⁾

이 기록은 1797년 무렵 규장각 대교 徐有榘가 작성한 것이다. 정조는 진덕수의 『대학연의』와 구준의 『대학연의보』 핵심 구절을 선별하여 『대학유의』로 편찬하는 작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다. 정조는 두 책을 함께 참조해야만 『대학』 8조목의 체제가 완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정조는 『대학유의』가 대략 10권으로 간행될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실제 1799년 필사본이 처음 완성되었을 무렵이 작품은 총 22권이 되었다. 25) 정조는 세자 책봉에 즈음하여 『대학유의』를 완성했는데, 이것은 율곡 이이가 『대학연의』와 『대학연의보』를 초출하여 『성학집요』를 편찬했던 것처럼 국왕의 입장에서 『대학』 8조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위의두 책에서 재구성하여 선집한 것이다. 26) 정조는 진덕수와 구준의 책이 학문과정치를 연계하고 경전의 가르침을 역사적 사실로 증거함으로써 經과 史를 일치시킨다고 보았기에 이들을 주제별로 구성한 『대학유의』에 삼대의 이상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도가 온전히 담겨 있다고 보았다. 27)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러한 경과 사. 학문과 정치의 통합을 완수할 수 있는가

^{24) 『}弘齋全書』165, 『日得錄』5, 「文學」5. 三代以上,經卽史,史卽經. 說命爲論學之書而治在 其中,洪範爲制治之具而學在其中,未始有教學之篇,另行於法令之外. 降及秦漢,道問學者, 指法書爲末務,志經濟者,指儒家爲迂闊,或有體而無用,或循末而舍本,於是乎經史始分, 而治道之汙隆,亦決於此. 惟真德秀之大學衍義,丘濬之衍義補,主之以爲學之目,繫之以制 治之方,援引經訓,旁徵史事,允得古人經經緯史之義. 予素耽看是書,每遇契意,輒加點批, 繕寫成帙,當爲十餘卷. 治學之宏規大目,庶亦卽此而無遺漏矣.

²⁵⁾ 김문식, 2007 앞의 책, 145-154면 참조. 이곳에서 『대학유의』의 편찬 및 간행 과정, 『대학유의』의 체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살펴볼 수 있다.

²⁶⁾ 윤정, 2007「정조의『大學類義』편찬과『聖學輯要』』『남명학연구』23, 논문에서 저자는 정조의 세손시절『聖學輯要』강독이『聖學輯略』으로 완성되고『大學衍義補』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으며『大學類義』편찬으로 귀결되었음을 연속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윤정, 2018「정조의『大學』이해와 君師 이념」『역사문화연구』65, 58-65면에서는, 군사로서 정조가『大學』전10장'絜矩之道'를 어떻게 理財, 즉 재정 정책을 통해 구현했는지 구체적 사례로 잘 설명하고 있다.

²⁷⁾ 김문식, 2007 앞의 책, 157면,

하는 점이다. 정조시대 엄청난 문헌 편찬과 『주자전서』의 수립 계획은 유학의 집대성자, 유학의 도통을 계승한 자가 곧 정조 자신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이었다. 삼대 성왕과 공자, 주자를 이어 도통을 계승했다고 자부한 정조는, 『대학유의』 편찬과 시행을 기반으로 經과 史가 통일되는 학문과 정치의 대통합을 자신이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학문의 영역에서 명백한 도통의 계승자인 주희도 학문과 정치의 통일, 경과 사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었다. 이것은 결국 사도와 군도를 함께 추구하는 군사만이 실현할 수 있는 과업이었다. 이 점에서 영정조 시대 국왕들의 반복된 군사론 강조는, 평범한 포의나 대부가 아닌 군주 자신만이 학문과 정치의 통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 독자적 군주 역할론을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조는 六經의 추뉴이자 聖學의 핵심이 결국 『대학』이라고 이해했다.²⁸⁾ 알려진 것처럼 『대학』은 『예기』의 편명이었지만 주희가 四書로 재편하고 『대학』을경1장과 전10장으로 구분한 후 경문은 공자 발언을 증자가 기록한 것으로, 傳은증자의 말을 증자 문인이 기록한 것으로 이해되었다.²⁹⁾ 주희는 '格物致知'를 설명하는 전5장이 전승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상실된 내용을 보충하는 補亡章(格物補傳章)을 새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大人 모두를 위한 학문, 즉 大人之學이란 의미가 부상되었는데, 그럼에도 정조는 여전히 『대학』의 규모와 절목이 人君 직분 안의 행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보았다.³⁰⁾ 그는 治國平天下를 요체로 하는 인군의 텍스트를 대인 일반에게 모두 허용한 주자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였다. 물론 정조는 주자학을 正學으로 표방했기 때문에당연히 『대학』 이해에서도 주희의 『대학장구』를 존중했다. 하지만 주희 해석의 미비점과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그는 주희 해석에 의문을 피력했을 뿐만 아니라 경문 중에도 불분명한 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28) 『}弘齋全書』164, 『日得錄』4, 「文學」4. 大學一書, 卽六經之樞紐, 聖學之坯樸.

^{29) 『}大學章句』經一章. 右經一章, 蓋孔子之言, 而曾子述之. 其傳十章, 則曾子之意, 而門人記之也. 舊本頗有錯簡, 今因程子所定, 而更考經文, 別爲序次如左.

^{30) 『}弘齋全書』67. 『經史講義』4. 朱子序. 大學之規模節目. 莫非人君分內事.

가령 정조는 『대학』전10장에서 '絜矩之道'를 말하고, 이어 '平天下'를 설명할때 단지 財用 정도만 언급할 뿐 정치의 요체라 할 만한 禮樂刑政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³¹⁾ 위정자가 혈구의 도를 적용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방책을 말한 이 장에서 인재 쓰는 일과 더불어 오직 재용 문제만 심각하게 거론했는데, 정조는 이것이 과연 平天下의 요체인지 의문이 들었다.³²⁾ 당시 정조의 질문에 답하며 강원 李時秀는 '絜矩之道를 쓰려면 사람의 好惡가 같다는 것을 알아야 恕를 실천할 수 있는데, 사람의 好惡 중 가장 강렬한 것이 재물에 관한 것이기에 군주가 재물을 잘 처리하면 결국 백성에게 혈구지도를 사용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답했다. 동일한 정조의 질문에 成種仁은 "예약형정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이니 진실로 편벽되지 않고 기울지 않게 이 마음을 보존할 수 있다면 허다한 節目은 저절로 기존의 법을 살펴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한다.³³⁾ 이처럼 강원들은 『대학』이란 책이 군주의 治心으로써 정치하는 것을 말했으므로 굳이 예약형정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았지만, 정조의 고민은 『대학』 전10장의 絜矩之道와 用人・理財를 어떻게 하면 예약형정의 효과를 산출하는 방책으로 의미있게 풀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1793년 경사강의 총경에서 정조는 『대학』전10장의 用人·理財와『서경』「고요모」의 知人·安民을 이렇게 풀었다. 사람을 등용하고 재물을 다스리는 기준이바로 '好惡'인데 임금의 호오에 따라 인재 등용과 재물 관리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면서 정조는 학자의 호오와 임금의 호오를 변별한다. "학자의 호오는 제한 몸을 착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에 불과하지만. 임금의 호오에는 만백성의 행

^{31) 『}弘齊全書』69, 『經史講義』6, 傳十章. 禮樂刑政, 所以措治之, 而平天下之大經大法也. 故孔子論王道, 則以夏時殷輅周冕韶舞爲先, 此禮樂也, 孟子論王道, 則以井地經界庠序學校爲先, 此刑政也. 而今此平天下一章, 無少概見於禮樂刑政者何歟?

^{32) 『}弘齋全書』68,『經史講義』5,傳十章. 平天下者,大學之極功也. 其事至大,其用至廣, 凡於化民之方,制治之具,可言者多,而一章上下,略不概見,獨以財之一字,反復申申焉. 財之為用,雖曰有國之所重,民生之所須,而財者末也,不過平天下中一事,則今乃表出而專言之者,抑何義歟? 時秀對: 此章專以同好惡爲絜矩之要道. 苟欲同好惡. 則莫先於理財. 蓋財者,人心之所同欲,因其所同而治之,然後可以平天下. 此所以財之一字,申申言之者歟.

^{33) 『}弘齋全書』69, 『經史講義』6, 傳十章. 禮樂刑政爲國之具, 誠能不偏不倚存得此心, 則許多節目自可按成法而行之.

불행이 걸려 있다."³⁴⁾ 국왕의 호오에 따라 용인·이재, 지인·안민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정조는 국왕의 혈구지도를 용인과 이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핵심 강령으로 이해했고, 나아가 理財, 즉 財用의 운용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석했다. 體用論의 관점에서 『대학』전10장의理財를 平天下의 要道로 삼으면서 財用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정치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財用은 백성과 나라의 근본이다. 『대학』에서 재물을 다루는 것을 천하를 평정하는 要道로 삼았으니, 재용이 다스려져야 근본을 바로잡아 정사를 시행할 수 있다. (···) 대개 학문에는 體와 用이 있고, 세상의 일은 모두 나의 직분 안의 일이며 錢穀과 군대는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이름난 석학인 金堉·閔維重 같은 자들은 모두 經濟를 자기 일로 삼았고, 근세의 李成中 같은 이도 理財를 급무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풍토는 자기만 알고나라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서 심지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하는 방법[富國安民之術]조차 쓸데없는 일로 여기니, 이래서야 나라가 무엇을 믿을수 있겠는가."35)

『대학』을 인군의 직분을 거론한 제왕학 텍스트로 이해했던 정조는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10장의 平天下 조목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要道로 지목한 재용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전곡과 군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재를 원활하게 하여 부국안민의 방책을 함께 도모하지 않으면 국가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학문의 體라고 할 수 있는 治心 혹은 心法 위주의 태도를, 자신만 알고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태도라고 경계하기도 한다. 이는 국왕

^{34) 『}弘齋全書』107, 『經史講義』44, 『總經』2, 『大學』, 傳十章之用人理財, 爲平天下之要道者, 即尚書在知人在安民之意也, 知人然後可以用人, 理財然後可以安民, 千聖相傳之訣, 儘乎其如合符契, 而其所操以爲用人理財之柄者, 好惡是已. (…) 然則學者之好惡, 不過一身之臧否, 而人君之好惡, 實係萬姓之休戚, 思深哉, 傳者之立言垂戒也.

^{35)『}正祖實錄』45,20년 10월 22일. 上謂備局有司堂上李時秀曰,財用者,民國之本也. 大學以理財爲平天下之要道. 財用然後,方可以端本而出治. (…)蓋學問者,有體有用,宇宙事,皆吾分內,錢穀甲兵,闕一不可. 我東名碩之如金堉閔維重者,莫不以經濟爲己任,至如近世李成中,亦知以理財爲急務. 今世風俗,只知有己,不知有國,至如富國安民之術,視若弁髦. 如此而國安有所恃哉?

으로서 정조가 견지한 『대학』이해의 고유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정조는 알려진 것처럼 주희가 고본 『대학』의 '親民' 표현을 '新民'으로 바꾼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그는 『대학장구』에 따른 전2장이 위정자가 스스로 밝아지는 '自新'만 언급했을 뿐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신민'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고 보았다.³⁶⁾ 전2장의 日新, 作新民, 其命維新에서 정조는 첫 번째가 위정자의 수양을, 두 번째는 스스로 새로워진 백성을 진작시키는 것을, 세 번째는 천명을 새롭게 받는 것을 가리킨다고 풀이한다.³⁷⁾ 정조가 이 대목에서 '신민'에 대해질문한 것은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정치행위[治人]가 군주의 개인적 수양[自修]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³⁸⁾ 당시에 질문을 받은 강원들은, 군주자신의 덕이 새로워지면 백성들의 덕은 메아리나 그림자처럼 저절로 새로워진다고 답하거나³⁹⁾ '新民'하는 것이 결국 군주의 '身敎', 즉 군주가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을 저절로 감화시키는 것이지 별도로 예약형정 제도를 마련해 백성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⁴⁰⁾ 하지만 정조는 이미 동궁 시절부터

^{36) 『}弘齋全書』68, 『經史講義』5, 傳二章. 此章之釋新民, 則首言日新, 其下繼以作新民, 而章句又云自新之民, 是不待上之作之, 而先已自新矣. 方其未新也, 上之人果用何道, 而使民起自新之念歟?(…)獨於此章, 一不言新之之工夫. 自新新民, 固無二致, 而驟看字句, 無或近於 躐其階級. 漏其節日歟?

^{37) 『}弘齋全書』70, 『經史講義』7, 傳二章. 苟日新之新,自新之新也,作新民之新,民之自新也, 其命維新之新,天命之新也. 三節所言之新,皆非新民之新,則烏在其釋新民之義也?若就一章之中,指摘其經文新字之正解,則當於何處見得耶?光顏對:先儒以爲新民之義,專在於作新民之作字. 蓋盤銘之日新,即新民之端,詩之維新,即新民之效,而康誥一節,乃是新民用工處也.

^{38) 『}弘齊全書』68, 『經史講義』5, 傳二章. 此章之釋新民, 則首言日新, 其下繼以作新民, 而章句又云自新之民, 是不待上之作之, 而先已自新矣. 方其未新也, 上之人果用何道, 而使民起自新之念歟? (…) 獨於此章, 一不言新之之工夫. 自新新民, 固無二致, 而驟看字句, 無或近於躓其階級. 漏其節目歟?

^{39) 『}弘齋全書』68, 『經史講義』5, 傳二章. 仁浩對:上之人,明德旣明,則下之同有是德者,其風動觀感,有不期然而然者.故己德之新,即新民之本,民德之新,即自新之推,明新雖是二事,其幾間不容髮,則其上行下效,捷於影響,有非言語所能形容. 夫豈別有新民工夫之可著論者耶?

^{40) 『}弘齊全書』70, 『經史講義』7, 傳二章. 作之一字, 不足以盡新民之義矣. 蓋作字, 只就感化上說, 至於新民之新, 則並包勞來匡直法度政刑, 作與新自有偏全之異. 烏可謂作之一字, 便盡新民之義耶? 光顏對: 作與新, 雖有偏全之異, 而新民之道, 必貴乎身教. 故治國平天下傳, 皆從感化上說, 而未嘗及於法度政刑, 觀於此, 則雖謂作之一字, 便盡新民之義, 亦未爲不可矣.

유사한 의문을 품었고 이에 나름의 해법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천하장에 이르러 이미 興孝, 興悌, 不倍를 말해놓고 그 아래에 絜矩 두 글자를 말했는데, 흥효·흥제·불배는 곧 스스로 새로워진 백성을 의미하고 絜矩 두 글자가 백성을 진작시키는 도구이니 이것을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공부라고 여기더라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⁴¹⁾ 정조가 『춘저록』에서 『대학강의』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新民'의 구체적 방도를 물었던 것은, 군주의 治心 같은 개인적 수양[自修=自新]과 구별되는 治民의 경세적 영역, 다시 말해 군주의 정치[통치행위]가 무엇인지 자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自新과 新民의 일치가 군주의 고유한 역량, 즉 經과 史를 일치시키고 학문과 정치를 통일하는 제왕의 고유한 과업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3. 『弘齋全書』 經史講義와 君師論의 함의

1781년 정조는 摛文院에서 처음으로 경사강의를 시작했다. 당시 학술토론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 『근사록강의』첫 권에 잘 나타난다. 과거에는 사대부 관료들이 경연에서 국왕을 교육한 주체였던 반면 정조는 스스로 君師를 천명하면서 군신 간의 학술토론을 주재하였다. 역대 선왕들이 참여한 경연 제도가 군왕의 덕과 정무에 아무 효용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정조는 이제부터 학문의 주체가 사대부가 아닌 국왕 자신이라는 점을 천명한다. 420 『실록』을 보면 정조가 경연의

^{41) 『}弘齋全書』3, 『春邸錄』3, 書, 答賓客. 至於平天下章, 旣言興孝興悌不倍, 而其下說出絜矩二字, 興孝興悌不倍, 卽所謂自新之民也, 絜矩二字, 卽所以作之之具也. 以此謂之新民工夫, 抑或不妨耶?

^{42) 『}弘齋全書』64, 『近思錄講義』1. 今日之會, 盛矣. 新移本院, 特臨此筵, 要與卿等, 一堂 詢諮者, 豈直為談書說經而止哉? 文義之外, 顧今日可言者多矣. 上自寡躬闕遺, 時政得失, 以及乎生民之苦樂, 前辟之治亂, 無事不言, 無言不到, 俾有所上下相益者, 即今日臨院之意也. 若使登筵挾策, 隨例應文, 則是不過為一場閒說話, 却何補於君德治謨哉. 蓋講說即因言而起疑, 因疑而釋疑, 終至於感發人善心者也. 是以朱子與象山, 義理不同, 門路各異, 而白鹿之講, 門人聽講者, 往往有泣下者, 言之感人也如是矣. 今欲誦聖言而說聖道, 以至乎一分開發, 則惟講說是已. 今日當與卿等, 盡日劇談, 夜以繼晷, 卿等盡言無諱, 予

참석 횟수를 점차 줄이면서 자신이 주관한 강의에 심혈을 기울인 것과 그런 정조를 비판한 이도 많았음을 엿볼 수 있다. (43) 경사강의에서 군신 간의 주요한 토론 대상은 물론 朱子書였고 나아가 四書三經과 역사서가 주된 논쟁의 대상이었다. 정조는 강의에서 주자의 경전 해석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불교와 서학 등에 포용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평상시 정조 학문의 본령이 주자학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44)

그런데 주희의 『대학장구』서문에 나오듯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총명예지자는 君師가 되어 못 백성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유학자들의 신념이었다. 이곳의 '군사'라는 표현은 국왕 자신 혹은 국왕의 인격 수양을 권면한 사대부들에 의해서도 강조된 것이다. 영조는 본인의 지위가 군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대학』의 窮理正心과 修己治人을 완수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군사의 덕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백성을 제대로 교도할 수 없겠지만, 이제 경전에 전수된 성인들의 가르침을 배움[學]으로써 師道를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45) 김종수는 『대학』의 주희 서문을 해석하면서 군사라는 표현을 완미해야 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그는 하늘이 군사를 세운 이유가 백성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본성을 실현할 수 없기에 군사로써 백성을 가르치게 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이한 점은 그가 삼대 이후에 師道가 무너졌고 君道도 미진한 점이 많았는데, 군도와 사도를 실현할 수 있어야 왕[君]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 점이다. 46) 사실 주희의

當虛襟而受之也.

^{43) 『}正祖實錄』 28, 13년 11월 17일 첫 번째 기사, "우의정 김종수가 조강, 차대에서 아뢴 글"

^{44) 『}弘齋全書』164,『日得錄』4,「文學」4. 予之尊閣朱子書,不下於經傳. 故以庸學序,附入於五經百選之中. 清城於古文百選, 自製序文以準百數, 况朱子之序乎.: 『弘齋全書』165, 『日得錄』5,「文學」5. 朱書百選, 在朱夫子地負海涵之學, 不過大鼎一臠. 然學者苟能潛心肆力,自可一生受用不盡. 孟子曰, 乃所願學孔子也, 予於朱子亦云, 朱書自幼讀之, 至今愈讀愈好.

^{45) 『}列聖御製』30, 『英宗大王』,文,「勸學綸音」. 噫, 位在君師,大學序云,窮理正心之道, 蔑如也,何以能修己治人?常覽序文中,躬行心得之句,自不覺歉然. 噫,三代以後,雖無此道,賢人君子無世無之,至于宋而羣賢輩出,此豈他哉,聖經賢傳之功也. (…) 噫,爲其君者,雖無君師之德,不能教導,若啓方册,孔聖在座,顏曾後先,吁嗟,諸大夫多士,何不學而師之!

^{46)『}夢梧集』3、講義、「春宮侍講日記」、己丑二月十二日、以兼文學入對畫講、下令曰、講官持大學入對. 入對于尊賢閣、令曰、朝筵講大學序、而因侍坐期迫、匆匆未暇商確文義、故令更持入矣. 賤臣曰、大學是軆用具備之書. 序中推說義理處甚好. 君師二字、宜細究. 皇天立君立師之

발언이나 김종수의 설명을 보면 총명예지자라야 비로소 군사가 될 수 있고, 군 도와 사도를 함께 실현해야 결국 왕노릇[=君]할 수 있다는 의미[=兩盡君師之 道, 然後方可謂之君矣]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은 이미 왕이기 때문에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맥락의 의미를 강조한 표현일 수 있다고 본다.

국왕 영조도 세손 정조를 교육하며 君師와 王者師를 구별하여 질문하 적이 있 다. "영조: 너는 군사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왕자사가 되고 싶으냐?" "정조: (천하를 다스리는) 왕자로서의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영조: 만약 (천하를 다 스리는) 왕자사가 될 수 없다면 군사도 될 수 없으니, 저 사관에게 부끄럽지 않 겠느냐?"⁴⁷⁾ 영조가 먼저 언급한 '군사'가 임금의 지위에 있기에 선험적으로 부여 된 국왕의 책무를 원칙적으로 가리킨 것이라면. 두 번째의 '왕자사'는 정치에서 사도를 구현한 君師兩盡의 실천적 王者를 가리킬 것이다. 이 점에서 정조에게는 자신이 학문과 도덕으로 참된 군사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표준과 극을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와 더불어 이미 왕인 자가 군사양진할 수 있다는 믿음 도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은 학문과 도덕을 연마하여 군사가 될 수 있지만. 범인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양자 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자는 국왕 자신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영조와 정조가 제왕이 가진 고유한 역할을 강조하고, 자신만이 학문과 정치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진정한 군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런 점에서였을 것이다. 제왕과 필서의 학문을 구별하는 정조 즉위 초년의 발언과『魯論夏箋』에서 서준보와 토 론했을 당시 정조 말년의 발언을 함께 살펴보자.

"사람들이 혹 匹庶의 학문은 修身齊家하는 일에 그치는 데 불과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고 여긴다. 필서의 학문도 제왕의 학문과 다를 것이 없다. (…) 공자·맹자의 일을 가지고 말해도 治平의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지 않은 적이

本意,民不能自遂其生,養之然後方遂其生,民不能自遂其性,教之然後方遂其性,養之斯謂之君,教之斯謂之師,三代以後,師道則亡,雖以君道言之,亦有多少不盡,兩盡君師之道,然後方可謂之君矣,

^{47) 『}英祖實錄』103,40년 3월 13일. 上行朝講, 講孟子. 命王世孫侍坐, 問曰, 滕文公能爲王者師 乎? 對曰, 不可爲也. 又問曰, 爾則欲爲君師乎, 欲爲王者師乎? 對曰, 願爲王者師也. 上曰, 其志則大矣. 史臣其記之. 若不能爲王者師, 又不能爲君師, 則獨不愧彼史臣乎?

없는데, 단지 지위를 얻지 못하여 道를 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필서라고 해도 또한 治平의 학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지 제왕의 학문은 필서의 학문과 緩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필서의 경우 학문이 치평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우선 德業을 연마하여 증진시킴으로써 공효를 이루기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것이 성인이이른바 어려서 배우고 장성하여 행한다는 것이다. 제왕에 이르면 어릴 때 이미 치평의 책임을 맡았는데, 수신제가의 공부가 깊은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치평의 공부를 버려두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더욱 공부에 힘쓰고 한편으로는 다스려야만 한다. 이 때문에 제왕의 학문은 더욱 급하고 위중하니, 필서의 학문과 매우 다른 점은 참으로 이것 때문이다."(8)

서준보: "「堯曰」한 장은 治統으로 기록한 것입니까, 道統으로 말한 것입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이 도를 행하는 것이고, 이 도를 행하는 것은 곧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도이고 도는 다스림이니, 治統과 道統은 본래 다름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위를 얻은 성인은 治統과 道統을 겸할 수 있어도, 지위를 얻지 못한 성인은 治統까지 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조: "「요왈」한 편에서 唐·虞·夏·殷·周 때 탄식하며 명한 말, 사람들에게 맹세한 뜻, 조처하고 시행한 일을 두루 서술하여 부자가 계승한 統緒를 밝혔다. 만약부자께서 지위를 얻어 도를 행했다면 『논어』 20편은 장차 放勳의「堯典」, 重華의「舜典」이 되고, 禹의「大禹謨」, 湯의「湯誥」가 되며, 武王의「武成」이 되는 등 여러 편이 되었을 것이다. 心法이 말미암은 바를 보면 『論語』가 곧 『書傳』이고 『書傳』이 곧『論語』니, 이것이 지위를 얻고 도를 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겠는가!"⁴⁹⁾

정조는 즉위 초에 제왕과 필서의 학문은 완급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48) 『}正祖實錄』6,2년 12월 15일. 且說者,或以爲匹庶之爲學,不過止於修齊之事云,予則以爲此有不然. 匹庶之學,與帝王無異焉. 傳不云乎,窮則獨善,達則兼善,雖以孔孟之事言之,未嘗不自任於治平之功,而特以不得其位,不行其道而然也. 以是觀之,雖匹庶,亦豈可不念於治平之學乎? 但帝王之學,與匹庶,差有緩急之殊. 在匹庶,則學未到治平之域,姑可進德修業,以責成效. 此乃聖人所謂幼學壯行也. 至於帝王,則沖幼之時,已任治平之責矣. 其可委之以修齊以上工夫之未造,而乃以治平之功,讓而不居乎? 尤當一邊用工,一邊做治也. 是以帝王之爲學. 爲尤急、尤重,而與匹庶,煞有殊焉者,誠以此也.

^{49) 『}弘齊全書』125, 『魯論夏箋』4, 「堯曰」堯曰一章, 抑以治統而記之耶, 抑以道統而言之耶? 治天下, 乃所以行此道, 行此道, 即所以治天下. 治即道, 道即治也, 治統道統, 固無異同歟? 抑得位之聖人, 可兼治統道統, 而未得位之聖人, 不可兼治統耶? 正祖: 堯曰一篇, 歷叙唐虞夏殷周, 咨命之言, 誓師之意, 施措之事, 以明夫子上接之統, 若使夫子得其位而行其道, 則論語二十篇, 將爲放勳之堯典, 重華之舜典, 於禹爲大禹謨, 於湯爲湯誥, 於武王爲武成等諸篇. 而究其心法之所自, 論語是書傳, 書傳是論語, 豈有關於得位與行道乎?

다시 말해 일반 선비는 개인수양이 완비된 후에 정치를 하려고 기다릴 수 있지 만. 제왕은 수신제가가 미흡하다는 핑계로 치국평천하를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된다고 인식하였다. 이 역시 국왕에게 고유하게 적용되는 군사양진 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논어』 『요왈 을 두고 말년에 서 준보와 대화할 때 정조는 『서경』에 드러난 心學과 政事의 요체가 『논어』 한 권 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정조는 『논어』를 삼대의 이상적인 행적과 정치 철학이 담기 경서라고 이해했다. 그는 공자를 사대의 예악을 가감하여 새롭게 완성한 인물로 보았고, 언젠가 왕자가 등장한다면 반드시 공자의 방도를 따를 것이라고도 주장한다.⁵⁰⁾ 같은 대목에서 정조는 『논어』의 핵심적인 원리는 결국 '皇極'으로 귀결된다고 총평하였다.⁵¹⁾ 앞서 언급했듯이 『魯論夏箋』의 정조 발언 은 대부분『論語講義』때보다 보수적이고 원론적인 경우가 많았다. 강설 때는 오히려 정조가 문신들에게 서준보처럼 반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 조는 『논어』가 곧 정치서인데 공자가 지위를 얻지 못한 점. 그래서 도를 행하지 못한 점이 『논어』의 심법과 도에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반문했다. 하지만 행간 의 의미를 보면, 공부자는 결국 지위를 얻지 못했으며 따라서 "만약 부자께서 지위를 얻어서 그 도를 행했다면..."이라는 국왕 정조의 가정에는 결국 공자가 지위를 얻지 못하여 도를 행하지 못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 다. 정조는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차이를 낳았다. 학문과 정치 혹은 經史의 간극을 공자도. 주희도 메울 수 없었지만 삼대 의 성왕 그리고 국왕 정조는 양자를 통일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50) 『}弘齋全書』122、『魯論夏箋』1、「八佾」正祖:萬一使夫子得其位,則亦豈可歸之於不足徵,而不制禮作樂耶?嘗曰行夏之時,乘殷之輅,服周之冕,樂則韶舞,損益四代之禮樂,著爲一王之制度,何有於杞宋文獻之有無也?有王者作,取法之必於是,亦若吾夫子之從周:『弘齋全書』125、『魯論夏箋』4、「衛靈公」,有天德者,必有王道,天德者,仁義誠敬是已,王道者,禮樂文物是已,合而言之,則德即道也,道即德也,分而言之,則德自德,道自道也.有天德然後可以爲王道,天德不足則雖有禮樂,不能合而爲一,而便不成王道矣.(…)正祖:行夏之時,乘殷之輅,服周之冕,樂則韶舞,即夫子損益四代之制,著成一王之法.答對顏子爲邦之問,若使夫子得位行道,亦豈外於是也哉?

^{51) 『}弘齋全書』122, 『魯論夏箋』1, 「八佾」故觀於聖人之門, 固難形容窺測, 而千言萬語之同而 異二而一. 畢竟歸趨, 即不過至精之義, 其妙入神, 大中之理, 惟皇作極.

정조는 여러 대목에서 진정한 君師로서의 자신과 신료들 간의 넘을 수 없는 분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군신이 상통하는 것으로 치면 한 집안 부자지간 같지만, 분의가 건너뛸 수 없게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늘을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52) 계단을 뛰어넘어 임금의 堂에 오르고자 하면 이는 洋學에서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하늘[天]에 닿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정조는, 일반 사람은 군자의 덕이 있어도 타인의 美를 이루기가 어렵고 오직 君師인 자신만이 타인의 美惡을 제대로 구분하여 실현할수 있도록 해준다고 역설했다. (53)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 본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修道之謂敎'의 역할은 전적으로 군사인 정조의 책무라고 간주한 것이다.

"돌아보건대 지금 師道의 책임이 나에게 달려 있다. 무릇 斯文에 관계된 일에서 의리를 참작하여 헤아리고 儀文을 재단하여 절제하는 것이 자연히 알맞은 바가 있으니, 그 도리에 대해 다만 복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될 터인데, 감히 스스로 의견을 세워 쉽사리 떠들고 있다. 그처럼 무식하고 교화를 가로막는 무리가 어찌 감히 사문의 大一統이 위에 달려있는 이때 함부로 입을 놀린단 말인가. 대개 하늘이 명한 것을 性이라 한다는 것은 하늘 입장에서 말한 것이요, 성을 따르는 것을 道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며, 도를 닦는 것을 敎라 한다는 것은 곧 君師의 일이다. 주자가 禮樂刑政으로 敎의 뜻을 풀었으니, 예약으로 가르쳐도 따르지 않으면 부득불 刑政으로 가지런히 한다. 이것이 바로 師道요, 君道다. (…) 倡明하는 것이나신중히 하는 것이 모두 師道가 있는 곳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처럼 나이 어리고 학문도 얕은 자가 君師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기꺼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잘못을 범하면서 망령되이 從享하는 중대한 禮典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세워 마치 대결하는 것처럼 했으니, 이 어찌 도리나 분의 상 감히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54)

^{52) 『}弘齋全書』170, 『日得錄』10, 「政事」5. 君臣之間, 自其情志流通而言, 則家人父子也, 自其分義截然而言, 則如天之不可階. 如使陵陛級而達簾堂, 是奚異於所謂洋學之撇却中間天叙天秩, 直欲接夫上清也.

^{53) 『}弘齋全書』72, 『經史講義』9, 『論語講義』2, 「顏淵」. 人之美惡成毀, 在其人之賢不肖如何 耳.如非任君師之責者, 已雖有君子之德, 將何以成人之美耶? 崑秀對: 此章之旨, 當以存心看, 不當以成效看. 而雖大小不同, 一人之身, 亦豈無成人之道耶? 特任君師之責者, 所及也廣爾.

^{54) 『}正祖實錄』45, 20년 8월 10일 첫 번째 기사, "유생들의 상소에 대해 부자를 동시에 배향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다."

정조는 무묘종사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 상이한 의리를 주장하는 연소한 유생 의 무리를 비판하면서, 의리와 사업의 주관자, 사도를 책임지는 자가 국왕 자신 이라는 점을 다시 재천명한다. 이미 정조는 서로 다른 정파의 의리를 조율하면 서 자신이 의리 문제에 관한 한 최종 판단권을 가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55) 노론이 남인의 서학을 문제삼으면 그들의 패관문체를 지적하고, 남인이 임오의 리를 강조하면 금등을 상기시키면서 양자의 의리를 조율했던 정조는 노론과 소 론 및 남인 청류 사이에서 의리에 기반한 탕평을 구현하는 주체가 자신임을 강 조한다. 경쟁적인 정파들 간의 당쟁에서 정조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거나 조율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교적 도리의 완벽한 체현자 역할을 하고자 했다. 56) 그리고 이를 위해 군주로서의 정당한 국왕권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결국 군도와 사도를 병진했던 완벽한 군사 정조는 국왕권에 기반해서 유교의 의리. 도리를 구현했던. 다시 말해 국왕 스스로 유교국가의 이상적 구현자가 됨으로써 국가공 공성의 상징, 존재론적으로는 만천명월주인이 되었다. 제도적 공공성이 아닌 개 인의 탁월성에 기반한 유교의리의 구현은 어떤 면에서 권력 견제시스템의 쇠퇴. 혹은 공론 정치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정조의 군사 론은 心法과 治平 양자를 병진한 실천지향적 추동력을 가졌음에도, 왕조사회에 서 세습군주의 권력강화를 견제하고 私天下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유교의 비판적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은 될 수 없었던 셈이다.57)

⁵⁵⁾ 이경구, 2017 「정조와 세도정치 이해를 위한 세 가지 고려」 『내일을 여는 역사』 68, 30-32면 참조.

⁵⁶⁾ 위의 논문, 32면 참조.

⁵⁷⁾ 이봉규, 앞의 규장각 국제심포지움 발표문에 대한 토론 요지, 3면 참조. "정조의 文治 관념은 心法 위주의 정치론이 事功의 성취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실 정치에 대한 反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개혁군주로서 정조의 문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습군주의 '私天下'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 유교를 재성찰하는 기본 동기가 됩니다."

4. 朱子一統之書 구상: 道統과 中華主義 문제

『魯論夏箋』・『鄒書春記』・『曾傳秋錄』 같은 말년의 경학 자료를 검토하면 정 조가 주자의 경전해석을 일관되게 존중하고 공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주희 의 저작을 경전 그 이상으로 중시했고 맹자가 이단을 비판하며 공자를 배우려 한 것처럼 자신도 주희를 따르려고 했다.⁵⁸⁾ 정조는 자신의 과거 공부를 돌아보 면서. 어릴 때부터 주자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입으로 외우며 마음에서 그 뜻 을 갓구하고 사색하여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회상한다^{59) 『}주자전서』의 편찬 계획은 구상 단계에서 그쳤지만 주자와 공자로 거슬러 올라가 정조가 유학 의 집대성자. 유학의 도통을 계승하는 자로 자부했음은 앞서 보았듯이 자명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율곡의 『聖學輯要』를 학습하면서 주자 이후 끊어진 유학 의 도통을 자신이 계승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졌다. 경전과 주자서에 대한 정조의 학문적 권위는 결국 정조에게 군왕으로서의 정치적 권위를 부여하는 첩 경이 되었다. 주자학의 최고 권위자라는 정조의 자부심, 그리고 자신이 군사로 활약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동아시아 세계의 정치감각을 지배했 던 尊周大明義理論을 尊王論 혹은 行王論의 관점에서 재성찰하는 계기가 되었 다. 명청 교체기 이후 중화문명. 中華라는 정치적 道統의 전승을 자임했던 정조 는 이제 정치적 도통의 좌표를 尊周, 尊王에서 行王으로 전환해가는 과도적 흐 름 속에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600

한편 정조는 영조대의 의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보단의 設壇祭禮를 시행했고 1796년 무렵『尊周彙編』과『阜壇配享諸臣日錄』도 편찬했는데, 물론 이것은

^{58) 『}弘齋全書』164,『日得錄』4,「文學」4. 予之尊閣朱子書,不下於經傳. 故以庸學序,附入於五經百選之中. 清城於古文百選,自製序文以準百數,况朱子之序乎:『弘齋全書』165,『日得錄』5,「文學」5. 朱書百選,在朱夫子地負海涵之學,不過大鼎一臠. 然學者苟能潛心肆力,自可一生受用不盡. 孟子曰,乃所願學孔子也,予於朱子亦云. 朱書自幼讀之,至今愈讀愈好.

^{59) 『}弘齋全書』182, 『群書標記』御定, 「朱子書節約十二卷」 참조.

⁶⁰⁾ 이봉규, 앞의 토론 요지, 2면 하단의 평가 참조.

明의 적자로서 정치적 중화의식을 피력한 사건이었다.⁽¹⁾ '中華의 儀章', '황제의 혼령', '大明의 明月'이 우리 동방에만 있다는 발언들은 이런 정조의 입장을 잘보여준다.⁽²⁾ 하지만 당시에 '孟子不尊周說'을 둘러싸고 성호학파 간 논쟁이 한참일 때, 영조와 정조 같은 국왕도 이 쟁점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이것은 군사로서 제왕의 권위와 역량을 어떻게 이해할지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조가 『맹자강의』와 책문에서 이 문제를 강원들에게 거듭 질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조는 맹자가 참람한 제후들의 선례를 따라 그들을 王이라 칭하면서 三代정치가 이미 소실되었다고 평가한 점을 문제삼는다.⁽³⁾ 정조는 맹자가 여전히 尊問했으며 稱王이라는 표현은 후대의 삽입에 따른 것이라고 본 사마천의 견해를 인용하며, 신하로서 맹자의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을 피력한다.⁽⁴⁾

⁶¹⁾ 정옥자, 2000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일지사, 30-35면 참조.

^{62) 『}弘齋全書』177,『日得錄』17,「訓語』4.春將親祼于皇壇,坐幄室致齋,是日天肅風烈. 愀然謂近臣曰,神理玄微,而孚感之跡則可徵矣.今天下皆左袵,惟我東有中華之儀章:『弘齋全書』177,『日得錄』17,「訓語』4.春有事皇壇。齋大于冽泉門外,終日大風.(…)及曉親祼禮成,教曰,吾東所以爲吾東,以其有數尺壇壝也. 庶可以永有辭於天下萬世,而九有昏蒙,四海腥羶,洋洋皇靈,不于吾東而將安適歸. 薦祼興俯之際,自不覺涕沾于襟:『弘齋全書』177,『日得錄』17,「訓語』4.大一統攘夷狄,明天理淑人心,使蕞爾東陲,獨葆大明日月,卽我列聖朝傳授之第一義諦,而予小子不敢不勉. 自在春邸,見志於吟詠著述者,不啻連篇累牘,而旋亦散逸,今存者,不過什之一爾.

^{63) 『}弘齊全書』76, 『經史講義』13, 「離婁」。孟子之時, 周室雖微, 猶天子也. 况宣平之際, 朝覲會同, 未嘗去周室而之他. 故幽厲之不仁也, 而天下猶不能不尊周. 則孟子之於此章, 直曰三代之失天下何也? 孟子之意, 固以東遷以後, 不足謂有天下而爲天子. 然天子之名故在也, 豈容遽歸之失天下耶? 魯春對: 周室東遷, 不復爲政於天下, 則國雖未亡, 而政已亡矣. 所謂失天下者, 豈非失其政之謂耶? 孔子之時, 天下猶知宗周, 而至孟子時, 天下之不知有周也久矣. 孟子獨無如天命人心何, 則安得不謂周已失? 而勸齊梁之君欲行王政者, 亦以此歟.

^{64) 『}弘齋全書』79, 『經史講義』16, 「梁惠王」 尊王黜霸, 孟子之道也,繼孔聖明春秋, 孟子之事也, 則梁惠僭王之號, 又何遽從而稱之耶? 或據史記魏世家, 襄王元年, 與諸侯會徐州相王, 追奪父惠王爲王之文, 以爲孟子至梁之時, 惠王未及僭號, 而此章所稱之王, 卽後人之追加, 此又不然, 今攷史記, 惠王立三十六年卒而襄王立, 立十六年卒而哀王立, 竹書紀年, 惠王三十六年改元, 改元十六年卒. 二說不同, 故杜預左傳集解後序, 是紀年而不從史記, 以爲史遷誤以改元之年, 屬之後王. 據此則會徐州相王, 卽惠王之事, 而固無待於襄王之追奪也明矣. 又豈可謂孟子至梁之時, 惠王未及僭號耶? 晚錫對: 孟子至梁, 在惠王三十五年, 而其改元稱王, 乃在三十六年, 則此章所稱之王, 爲後人追加也無疑. 故史記引此章, 皆稱君而不稱王也.

맹자책문에서도 정조는 공자의 『춘추』가 尊周한 반면 맹자는 제후들에게 行王을 유세하고 다닌 연유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56) 당시 책문에 답한 정약용의 「맹자책」을 보면, 그는 공자가 천하를 주유한 이유도 단지 周王을 위해서가 아니라결국 왕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66) 정약용은 주나라의흥망과 관계없이 이념적으로 왕도정치를 시행하는 것, 즉 행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군신관계에서는 맹자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행왕의 측면에서는 정약용의 관점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57) 각신 김근순과 말년에 이 점을 토론했을 때, 정조는 純王의 도리를 설파하고 行王을 주장한 것은 공자와 맹자 경우가 모두 동일한데, 다만 처한 때가 달랐기에 공자는 尊周로써 行王했고 맹자는 保民하기 위해서 行王했다고 평가했다. (68) 이렇게 보면 정조도 奪周라는 특정한 상황의 의미가 아닌 行王의 보편적 의미를

^{65) 『}弘齋全書』50, 策問 3, 「孟子」. 王若曰, 孟子孔子後一人, 而孟子七篇, 孟子之道之所載也. 或以為歷聘不遇, 退而自著, 或以為沒後門人, 追記其言, 二說何者為是歟? 論語只說仁字, 孟子則并四德教人, 春秋獨尊周室, 而孟子則勸諸侯行王, 所願學孔而若相反然者,何歟? 善養浩氣, 誠有發前聖未發之功, 而只道性善, 得無不論氣不備之嫌歟? 好說詩書, 而獨不引周易之辭者, 何歟? 優入聖域, 而猶未免戰國之習者, 何歟?

⁶⁶⁾ 丁若鏞,『與猶堂全書』,『詩文集』8, 對策,「孟子策」,春秋獨尊周室,而孟子勸行王道,所願學孔,而若相反者然何歟? (…) 勸行王政之異於春秋者,臣以爲孔子之轍環天下,其爲尊王歟,抑爲行王歟? 嘗答哀公之問,規模節目,粲然一王之制,而一言未及於尊王,則夫子平日之志,概可知也.春秋之大書特書,誠以其文則史也,或以爲孟子之時,周衰益甚,故勸諸候行王者,臣未之信也.

⁶⁷⁾ 필자는 『맹자강의』를 분석한 논문에서 맹자의 정치적 관점을 논평한 정조의 입장을 소개했다. 졸고, 2009 『『맹자』 해석에 나타난 정조의 사유경향 분석』 『철학사상』 34.

^{68) 『}弘齊全書』129, 「鄒書春記』1, 「梁惠王」, 明堂章, 明堂者, 王者之堂也, 諸侯之不可居 是堂明矣, 宣王之欲毁也, 孟子何不告之以尊周之義, 直以行王而王勸之何義也? 大抵孟 子此義理, 誠千古不敢知之疑案, 大儒如司馬溫公亦致疑怪, 其說似不為無據, 此當何以 辨之? 謂以天命人心已去於周室, 不足與有爲云爾, 則天道難知, 聖人未嘗言命矣, 王道 苟行, 人心不可復歸乎? 且周顯王慎靚王, 何渠不若齊宣梁惠耶? 均之爲不足與有爲, 則 此又何據焉? 妄論聖賢出處, 固知無關於己分, 無補於事爲, 而如得聞聖人定論, 則溫公 有知, 想亦服罪, 奚但一時辨說之幸也. 正祖: 孟子學孔子, 而孔子尊周, 孟子說齊梁以王 道者, 先儒多有疑之者. 然孔子亦嘗歷聘諸侯, 亦嘗勸諸侯行純王之道. 但孔孟所處之時 不同者有之, 孔子之言王道, 所以尊周也, 孟子之言王道, 所以保民也. 時旣不同, 其不違 時有如此矣, 大王之避獯鬻, 文王之徂密, 各一時耳.

설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중화문명의 세계에서 왕도정치를 추구함으로써, 즉 스스로 行王함으로써 정치적 도통의 승계를 자임했다면, 정조는 조선 내부적으로 이단사설의 유포에 맞서 正學을 수립하려는 학문적 도통 의식을 드러냈다. 명청의 패관소품체, 당물의 유행, 서학의 유입과 범람, 서양과학에 관심이 집중되던 당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학술의 교정자로서의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것이다. 世道가 은폐되고 말류의 폐단이 범람하는데도 조정과 대신들이 젊은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교도하지 못함을 비판한 것도 유사한 이유에서다. 영양 정조는 일반 선비도, 대신도 이런 학술과 풍속 교정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기에 부득불 자신이 군사의 책무를 맡게되었음을 호소한다. 나아가 학술과 치평을 일치시키는 군사로서의 자신이 皇極의 자리, 만사만물과 천리인심의 판단자인 황극의 이념적 지위에 서 있음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布衣의 권한이 무거울 때도 있고 재상의 권한이 무거울 때도 있고 조정이 총괄하는 때도 있다. 포의의 권한이 무거우면 處士들이 손뼉치며 세도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왕공이 위엄을 잃으며 벼슬아치가 사역 당한다. 재상의 권한이 무거우면 사당을 포진시켜 임금의 총명을 가리면서 주고 뺏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해서 威福이 아래로 옮겨간다. (…) 내가 비록 덕이 없지만 고금을 살펴보고 손익의 의리에 침잠해서 推移의 형세에 정견을 갖고 있으니, 권력의 중추를 잡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부득이 君師의 책무를 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70)

"40년의 공부가 오직 天理를 밝히고 人心을 바로잡는 데 있었다.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밝히지 않을 수 없고 바로잡지 않을 수 없어서다. (…) 말과 정사의 크고 작음을 따질 것 없이 天理를 밝히고 人心을 바로잡는 데 관계된 것이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어디를 따라서 皇極에 모이겠는가."⁷¹⁾

^{69) 『}正祖實錄』 45권, 20년 8월 10일 첫 번째 기사, "유생들의 상소에 대해 부자를 동시에 배 향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다."

^{70) 『}弘齋全書』169, 『日得錄』9, 『政事』4. 有布衣權重之時, 有宰相權重之時, 有朝廷總攬之時. 布衣權重, 則處士抵掌, 捭閭世道, 王公失其威, 搢紳甘為役. 宰相權重, 則布置私黨, 壅蔽聰明, 與奪惟意, 威福下移. 自其善者言之, 亦豈無扶顯持危之時, 而自其不善者言之, 卽前所云, 覆轍相尋, 可不懼乎? 予雖否德, 粗覽今古沉潛乎損益之義, 櫽栝乎推移之勢, 非樂乎權綱之收攬, 不得不自任以君師之責.

^{71) 『}弘齋全書』169, 『日得錄』9, 「政事」4. 四十年工夫, 惟在明天理正人心. 明之也正之也, 不可不明之也, 不可不正之也. (…) 動靜云為, 如有否者, 雖舉朝容悅, 盈廷贊美, 百歲在後, 千歲在前, 顧焉敢誣. 而言無巨細, 政無大小, 凡有關於明天理正人心, 非予之教, 是率安所會極乎? 原任直提學臣李秉模丁巳錄,

^{72) 『}弘齋全書』180, 『羣書標記』2, 御定 2. 皇極編十三卷親撰緣起曰, 我朝士大夫, 尚言議重名節, 彬彬郁郁, 誠有可觀. 轉而至於激, 激而至於睽, 樹黨分朋, 不得爲君子之爭. 而色目二字, 肇自宣廟乙亥, 其後有百派歧, 障瀾無術. 雖欲溯求君子小人之所以分, 忠黨匪類之所由別, 漠然無所依據, 隨人口吻, 因是因非, 不亦可笑之甚乎? 乃取公私文蹟, 廣加鈔輯, 作爲此編. (…) 大抵予所以編此書, 豈欲其推波助瀾, 教猱升木哉. 秖爲士君子言論, 本不當道聽塗說. 苟然相襲, 且使有公眼者平心讀此, 則未必不有助於懲前毖後, 開拓心胸之方云. ※『황극편』13권은 서울대 규장각에 필사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황극편』(古4250-34) 12권과『황극편』(奎4878) 1권을 합해 13권에 대한 한 부의 필사본이 있다.

^{73) 『}弘齋全書』50, 策問 3, 「皇極」, 為治之道, 莫京於皇極. 而自箕子之發之, 更後數千載, 尚有能建其有極者乎?(…)予之受先王命, 承先王位, 且十載于茲, 繼述之溪應未著, 傾軋之宿弊漸長.(…) 予不能欽遵皇極是彝是訓, 以盡予堂構之責, 先王其肯曰予有後. 雖予搢紳章甫, 不能惟皇之極, 同寅協恭, 以弼予會歸之治, 乃祖乃父其肯曰余有後. 烏虖, 朋黨破則國脈不傷. 皇極建則王道其昌.

^{74) 『}正祖實錄』1권, 즉위년 1776년 5월 16일 두 번째 기사; 2권, 즉위년 1776년 9월 22일 첫 번째 기사 참조. 위『실록』기록은『홍재전서』30권,『廷臣祛黨申飭敎』에도 수록됨.

이것은 의리판단의 전권자인 국왕의 소관으로서 당파 간의 조율이나 견제가 아 닌 기존 붕당의 혁파라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 책은 바로 붕당의 분쟁 내용인데 왜 황극으로 명했는가? 그것은 황극이라야 붕당설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붕당을 깰 수 있는가? 옛날 붕당은 깰 수 없었지만 지금 붕당은 깰 수가 있다. 왜인가? 옛날에는 군자가 군자끼리 당을 하고 소인이 소인끼리 당을 했으므로 붕당을 깨면 군자는 피해를 받고 소인은 뜻을 얻었다. (…) 그러나 지금 붕당은 군자소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주장하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다. 저쪽에 하나의 시비가 있고 이쪽에 하나의 시비가 있고, 저쪽에 군자소인이 있고 이쪽에 군자소인이 있어서 그 붕당을 깬 후에야 군자끼리 모이고 소인이 교화될 수 있다. (…) 자기 마음을 공평히 하고 이치를 공정하게 살펴 잘못이 자기에게 있으면 자책하고 상대에게 있으면 용서해서 훈계하고 타일러 자기 자리에서 평안하면 이것이 곧 황극의 도인데. 붕당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75)

정조의 입장처럼 어떤 면에서는 소모적인 붕당의 대립이 종식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정치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해서 구현되는 새로운 가치가 유교적 진리의 체현자인 국왕 정조에 의해서 확증될 수 있다고 보았다면, 이 점 역시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을 것이다. 군사로 자부했던 정조는 사대부들의 治心 위주의 정치론, 수신제가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태도가 정치 비효율성과 이념적 대립을 낳는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던 것 같다. 그는 군사로서 즉각적인 治平을 실현하기 위해 用人理財와 禮樂刑政의 제도 수립에 집중했다. 그리고 經史의 통일, 학문과 정치의 통일을 위해 스스로 황극의 자리에 섰다. 『皇極編』의 기술은 당연히 정조의 이러한 군사양진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황극의 지위—의리의 판단자—를 점유하기까지의 불가피한 의도와 황극의 자리에서 배출한 정조시대의 이념과 정책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의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이 때문에 정조가 견지한 이념과 제도까지

^{75)『}弘齊全書』8,序引 1,「皇極編序」,此編即朋黨分爭之說也,奚以名皇極也?惟皇極,可以破此說故名也,然則朋黨可破歟? 曰古之朋黨不可破,而今之朋黨可破也.何者? 古則君子與君子爲黨,小人與小人爲黨,欲破其黨,則君子必受病,而小人必得志.(…)今則其爲黨也,非君子小人也,特歧於議耳.彼亦一是非,此亦一是非,彼亦有君子有小人,此亦有君子有小人,必破其黨,然後君子可萃,而小人可化.(…)苟能平以秉心,公以察理,罪在己則訟之,過在人則恕之,胥訓告教誨,靖共厥位,斯即皇極之道,黨於何有?

모두 필연적으로 수긍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점에서 사대부들의 당파적 여론이 일시적 혹은 주관적일 수 있는 것처럼, 국왕 정조의 입장도 결국 군주 자신 혹은 왕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당파적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경합하는 사대부들의 정파 간 대립과 갈등에서 군주 역시 또 다른 당쟁의 주체로 파악될 수 있다는 말이다. 76) 다만 국왕 정조의 정치적 태도를 이렇게 평가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우리는 권력견제의 구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윤리적, 정치적 시비판단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아닐까? 가령 여러 당파 간의 난립과 다툼을 단순한 공존과 조화의 상태로 간주할 수 없는 것처럼, 시비선악의 윤리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제쳐두고, 상호공존과 권력견제의 논리만을 강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조는 탕평 두 글자가 영조 50년의 성대한 덕업이었는데 자신이 그 뜻을 계승하여 조정 신료들에게 정치의 표준[極]을 정립하는 의미를 밝힌다고 공표하였다. (주) 정조는 최후의 며칠 사이에도 규장각 관리들과의 접견에서 『서경』 「홍범」 10장 '惟皇作極'을 거론하며, 오직 임금만이 극을 세운다고 했으니 왕이 건극할때 사대부들이 아래서 함께 보좌할 것을 역설한다. (주) 그러나 당시에도 그리고 정조 사후에도 이와 같은 정조의 군주황극론에 깊이 공감했던 인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 이에 따르면, 정조가 황극에 선 군사로서의 자신의 경세적이상을 온전히 반영한 『대학유의』는 정조 사망 후 1805년에 활자화 되었지만,

⁷⁶⁾ 이봉규, 앞의 토론 요지, 2-3면 참조. "당쟁을 다룰 때 사대부 세력 사이의 정파적 경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군주와 왕실도 하나의 당쟁 주체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皇極編』은 하나의 당파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77) 『}弘齋全書』167, 『日得錄』7, 「政事」2. 教筵臣曰, 予新題寢室曰蕩蕩平平室. 蕩平二字, 即我聖祖五十年盛德大業也. 予之夙夜一念, 惟在於追述先烈. 勿論東西南北酸鹹緩峻, 惟人是擇, 惟才是取, 使擧一世, 同寅協恭, 偕至大道, 永享和平之福. 特揭堂扁, 蓋欲使今日廷臣, 咸知予立表準之意.

^{78) 『}정조실록』 54, 24년 6월 16일 기사 '약원 제신과 대신 및 각신을 접견하고 심회를 말한 글'

⁷⁹⁾ 김문식, 2007 앞의 책, 159-160면 참조. 이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정약용이 『대학유의』에 나타난 정조의 관점에 부합하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인·안민의 경세학, 사공의 효과를 중시한 요순의 군주상을 정약용이 자신의 일표이서 경세학 저술에서 부각시켰다고 평가한다.

안타깝게도 정조의 기대와 전혀 달리 『대학유의』는 경연에서 강의된 적도, 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된 적도 없었다. 황극의 주체로서 의리와 사업의 판단자였던 정조의 사후, 황극군주론은 더 이상 유교사회의 정치현실에서 유의미한 기제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5. 맺음말: 학술논쟁과 정치(政)의 의미

정조는 시대를 바로잡고 풍속을 구제하는 矯時正俗[矯時救俗]의 방법으로 士 쭵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사대부의 풍속을 교정하는 것을 자신의 급무로 삼았다. 80) 정조 스스로 선비들의 풍속과 학문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쇄신하는 주체라고 판단했다. 즉위 초부터 정조는 사대부가의 현준한 인재를 선발해서 직접 경서를 교육시키고 강경·제술로써 독려하며 학문을 권면했다. 81) 나라의 원기인 선비를 기르고 단속하는 임무가 사도를 짊어진 군사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82) 정조가 수많은 科題를 직접 출제했고 수천 건의 시험답안을 채점하며 적합한 인재를 직접 선발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83) 그랬기에 다양한 학풍을 조율하고 학파간의 갈등을 혁파하는 주체 역시 정조 본인이라고 생각했다. 정조가 '以熱治熱'의 대국방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치적

^{80) 『}弘齋全書』178, 『日得錄』18, 「訓語』5. 矯時救俗之道, 莫先於正士習. 喜事自用, 游談無根之徒, 不但為某一身之放倒而已. 好言人是非, 妄論朝廷得失, 其流之弊, 有不可勝言. 予不欲聞士子有此行也.

^{81) 『}弘齋全書』174,『日得錄』14,「訓語』1. 近來文風不振, 士夫家子弟, 亦罕讀書者云, 誠非細故. 抄擇年少文官, 課以經書, 試以製述, 月以爲常, 又數引居齋儒生, 或講或製, 以示勸獎之意, 使士子輩略知朝廷嘉尚經術文章之意, 則自當有觀感興起之效. 故不憚煩勞而爲之也.

^{82) 『}弘齋全書』167, 『日得錄』7, 「政事」2. 士者, 國之元氣也. 列聖培養之盛德, 予敢不式克欽承, 而任他乖激, 不之誨飭. 亦非所以盡作成之義也. (…) 吾道日孤, 士趨日非, 自行自止, 無所取裁. 予雖否德, 安得不以師道自居乎?

⁸³⁾ 박현순, 2016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 참조. 저자가 소개한 『臨軒題叢』은 문과와 초계문신 제술시험, 성균관 시험 등을 직접 출제한 정조의 御題 모음집이다. 『臨軒題叢』의 어제를 통해 정조가 군사로서 관리와 유생에게 요구한 공부의 성격, 문체 등을 살필 수 있다.

대립 국면은 주로 학술적 논쟁의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정조는 노론 자제들이 지나친 唐物 취향을 보이는 점, 명청대 소품, 역수, 북경 기물에 도취된 태도를 비판한다. 84) 책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집기까지 모두 중국산 외제를 선호하던 풍속을 비꼬면서 "이미 우리 동방에 태어났으면 마땅히 우리 동방의 본색을 지켜야지 어찌 중국 사람을 본받으려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힐난했다. 85) 정조는 명물도수학과 서학 모두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학으로서의 주자학을 내세웠다. 이렇게 이질적인 학술경향을 중재하는 듯했지만, 정조와 다양한 정파들에 있어서 이러한 학술논쟁은 적나라한 정치투쟁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右文之治, 文治를 유독 강조한 정조시대에는, 학술논쟁에 동반되는 이념과 가치의대립이 곧 긴박한 정치적 사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조의 황극론은 그 근저에 太極論 혹은 理一分殊論 같은 주자학 존재론을 가정하고 있다. 정조가 군사로서 자신의 지위를 황극[태극], 세상의 모든 사물을 비추는 하나의 달[萬川明月]에 빗대었을 때, 이것은 자신이 부여받은 인의예지의 본성을 가장 온전하게 실현했다는 믿음을 가정한 것이다. 그가 군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바로 인간 본성의 충실한 구현자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정조 그리고 동시대 유학자들이 통치의 정당성을 인격[德性]과 학문[師道]의 완성에서 구하려고 했던 점에서, 이들이 정치 혹은 정치적 행위의 고유성보다 인성론과 윤리학, 혹은 존재론에 따른 이념적 가치를 더 중시했던 인물들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인격과 학문의 완성이라는 도덕적 잣대에 비추어 정치행위의 잘잘못을 평가한 이들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정치의 부재를 초래했다는 비

^{84) 『}弘齋全書』172, 『日得錄』12, 「人物」2. 百物之來自中原者, 我東莫不貴視, 稱以唐物, 雖賤者, 能掩土產之貴者. 獨於族姓則不然, 皇朝人子孫之在我土者, 我人甚賤之. 彼祖先皆中國冠冕人也, 豈不及我國卿相家子孫耶? 大抵我東專視門閥, 亦甚小規模. 思之, 實有貴物而賤人之歎: 『弘齋全書』177, 『日得錄』17, 「訓語」4. 唐學有三種, 有多蓄明淸間小品異書者, 有專尚西洋曆數之學者, 有衣飾器皿之喜用燕市之物者, 其弊則一也,

^{85) 『}弘齊全書』175, 『日得錄』15, 「訓語』2. 近來士夫間, 習尚甚怪, 必欲脫却我國規模, 遠學唐人所為. 書册姑無論, 至於尋常器皿什物, 亦皆用唐產, 以此競為高致. 如墨屛筆架交椅卓子, 鼎彝樽榼等種種奇巧之物, 布列左右, 啜茶燃香, 强作疎雅態者, 不可殫述. 以予深坐九重, 猶得聞之風便, 其狼藉成弊, 不言可知. 古人云今人當服今人服, 此言切實可敬. 此輩旣生於我東, 當守我東本色, 豈必竭死力效噸唐人耶? 是亦侈風之一端, 而末流之弊, 將有不可言, 不可求者, 實非尋常之憂也.

판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사유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인성론, 윤리학, 존재론에로의 환원주의적 해석 태도가 정치의 첨 예한 특성을 간과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조시대의 정치담론이 규범적인 인성론이나 유리학으로 휘워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를 뒷받침하는 인간 본성에 관한 당 시의 논쟁들은 누가 선하고 불선한지.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누가 학 문적으로 탁월하고 그렇지 못하지를 두고 끊임없이 다투고 논쟁하도록 추동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학연에 바탕을 둔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정치 지형에서는. 정치론을 규범적 본성론이나 윤리학으로 간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품의 수준과 학문의 차이를 두고 벌인 수백 년 간의 갈 등과 논쟁들이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다. 이 점에서 보면 여러 학풍을 조율하고자 한 정조의 태도는. 다분히 정치적이 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조율 행위가 단순히 권력다툼이나 정치적 알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정조는 권력을 두고 투쟁하고 대립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교육자이자 참된 스승으로 보이기를 희망했다. 이것은 정치의 부재가 아 니라 오히려 '정치란 무엇인가'를 되묻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삼대의 군사를 꿈꿨던 이들—정조와 사대부—의 유교적 세계에서 경과 사. 학술과 정치는 서로 를 지향하면서 통일을 꾀하지만. 결국 학문과 정치의 괴리. 도덕과 정치의 갈등 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황극을 세운 군사로서 자처한 정조였지만 그는 세습군 주였으며 항상 도덕을 검증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였다.86) 따라서 학문과 정 치는 단절과 불연속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학문과 도덕을 지향하면서 도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 정치는, 자신의 정체성을 매번 부수고 재건하면서 새 롭게 구성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조선시대의 학술논쟁은 도리어 정치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되묻게 하는 촉매제로 기능했다고 생

^{86) 『}正祖實錄』28, 13년 11월 17일 첫 번째 기사, "우의정 김종수가 임금의 덕복에 대해 조 강과 차대에서 아뢴 글"참조. 김종수는 정조가 기질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인욕을 털어 없애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성인으로 자처하고 신하들을 깔본다고 비판했다.

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조의 신념 안에는 두 가지 상이한 믿음이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학문의 성취에 기반하여 누구나 군사가 될 수 있 다고 본 성리학적 이념 그리고 이미 군주가 된 자만이 사도의 완성을 통해 군사 로서 존립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학자들과 다른 군주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본 두 관점이 병존한 것이다. 『논어』 「선진」 24조목을 보면, 공자의 제자 자로가 자 신에게는 백성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정치행위가 있고 사직을 통해 귀신과 조상 을 섬기는 일이 있으니, 꼭 글을 읽은 뒤에야 학문한 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 문하자 공자가 화를 내며 "이러니까 내가 말재주만 있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한 대목이 있다. 『논어강의』에서 정조는 오히려 자로의 관점을 두둔하면서, "배움이 성취되기 전에 몸이 이미 벼슬살이를 하게 된 경우라면, 정치를 하는 것과 학문 을 하는 것을 마땅히 동시에 아울러 진취시켜 나가야 하는데, 민생과 사직을 학 문 바깥의 일이라고 여겨 반드시 배움이 완전한 경지에 이르길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정치를 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자로의 이 말 역시 의리 에 어그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⁸⁷⁾

강원 이석하는 당시 이렇게 답했다. "학문을 하는 것과 정치를 하는 것이 비록 함께 진취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근본을 논하면 학문이 넉넉해진 뒤 벼슬하는 것이 옛 법도입니다. 지금 자로의 말은 곧바로 정치를 학문으로 여긴 것이므로 그 근본과 말단의 순서를 잃었습니다." 정조가 학문의 완성 전이라도 민생과 사직을 돌보는 정치에 간여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이석하는 학문의 성취가 근본이며 그 다음에 벼슬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조는 이 쟁점을 민감하게 여겨 동일한 질문을 자주 던졌고 그때마다 治民이란 이미 학문 가운데 있으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대응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88) 治心과 治平[治民]의 병행은 경사일치를 지향하는 군사 정조의 입장에서

^{87) 『}弘齊全書』71, 『經史講義』8, 『論語講義』1, 「先進」、幼學壮行, 固是大經大法, 而設有學未及就, 身已從仕者, 則爲政之方, 爲學之道, 所當兼進而並行. 不容以民社之責, 屬之學問外事, 而必待其學到十分, 始許爲政也. 然則子路此說, 抑亦不悖於義理, 而夫子有惡佞之訓, 何也? 錫夏對:爲學爲政, 雖可並進, 而若論其本, 則學優而仕, 古之道也. 今此子路之言, 直以政爲學, 失其本末之序, 夫子惡佞之訓, 不亦宜乎?

는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이었다.

정조는 국왕의 통치행위가 학문에서 정치로 이어지는 사대부들의 방식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과 좋은 정치의 관계가 반드시 필연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효성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라도 그에게 정치를 의뢰할 경우 책무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 정조의 우려는 이런 이유로 등장한 것이다. 899 정조는 서준보에게 이와 같은 관점을 피력하면서, 정치란 도덕성과는 다른 또 다른 성격의 기능이 작동할 때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 때문에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자에게 국정을 행하도록 하고 세도를 맡기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마땅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라고한다면 아마도 그럴 리는 없을 듯하다. '自守[自修]' 운운한 것은 어찌 그리도꽉 막힌 말인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없지만, 또한 스스로 지킬 수 있더라도 큰일을 하지 못하는 자 역시 어찌 없겠는가." 정조의 당시 발언을 보면, 그가 염두에 둔 정치가 도덕이나 학문으로 환원되는 단순한 규범적 운영방식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왕으로서 정조는 오히려 이상과 현실 정치의 괴리를 매우 예민하게 포착했을 것이다.

정조를 포함한 당시 유학자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행위[政]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들이 정치를 단순히 약육강식의 무력충돌이나 경쟁적 갈등상황—또는 갈등의 중립적 중재—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혹은 서구에서처럼 개인의 몫을 공정하게 측정하거나 이윤을 재분배하고, 침해 불가한 개인 자산(소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계약을 수립하는 것을 정치로 간주

^{88) 『}弘齊全書』72, 『經史講義』9, 『論語講義』2, 「先進」. 學不特讀書而已. 治民事神, 何莫非學問中事. 是以大學格致修齊, 未始不交修並致. 則夫子於子路之對, 深惡而痛斥之者, 何也? 種仁對:子路之言, 不曰奚特, 而曰何必, 則是歸重於治民事神也. 子夏之吾必謂學, 尚不能無弊, 况此乎? 且夫子之所深惡者, 正在初無是意, 而臨時杜撰. 其失言之過小, 欺心之罪大, 故不斥其言, 而痛斥其佞也.

^{89) 『}弘齋全書』124, 『魯論夏箋』3,「子路」, 世固有一種人, 篤於孝友, 而材學全然不足者, 惟其有實行, 僅可以爲士之次, 故孔朱之論如此, 可謂移易不得. 何可別生議論, 拖長爲 說, 便若有突過底意思, 極未安. 孟子言堯舜之道, 君陳說施政之體, 此皆推原之論. 若以此謂有孝弟者, 便可以行國政任世道, 無所處而不當, 則恐無是理. 自守云云, 又何其窒也. 固未有不能自守而能有爲者, 亦豈無能於自守而不能於有爲者乎?

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유학자로서 정조에게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정치란 과연 무엇이어야 했을까? 그들은 정치가 무엇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을까? 이렇게 그들에게 되묻는다면, 구성원을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실현 가능한 공동체 운영의 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것 같다. 물론 이것도 필자의 입장에서 진술한 말일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보아도 역시 도덕과 정치 사이의 간극이 너무 넓어 보인다. 아마도 이런 간극 사이에서 정조와 18세기 지식인들 이 고민했던 것을 반추해보아야 할 것 같다.

주제어: 正祖, 君師, 朱子學, 弘齋全書, 經史講義, 大學類義

투고일(2020. 2. 4), 심사시작일(2020. 2. 12), 심사완료일(2020. 3. 6)

(Abstract)

King Jeongjo's Understanding of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and Problems of Politics

Baek, Minjung *

A collection of King Jeongjo's 正祖 (1752-1800) writings, the Hongjae Jeonseo 弘齋 全書 includes the *Gunseo Pyogi* 群書標記, where it is possible to view a list of all documents compiled under his rule. According to this work, during the monarch's reign, 153 items of books amounting to over 4,000 fascicles were compiled. Texts compiled under his direct supervision 御定書 alone amount to over 2,000 fascicles. When works compiled by the king's closest scholar-officials 士大夫 including those affiliated with the Royal Library and Archives 奎章閣 at his order 命撰書 are included here as well, the total amounts to more than 4,000 fascicles. Included in this collection are numerous unique works that provide a glimpse of King Jeongjo's academic and political opinions such as his poetry collection, *Gyeongsa Gangui* 經史講義 (records of academic seminars on Confucian classics and ancient East Asian histories between him and his ministers), *Simnirok* 審理錄 (his trial records), and *Ildeungnok* 日得錄 (records of his oral statements).

Out of the many documents compiled during King Jeongjo's reign, the *Daehak Yuui* 大學類義 was the most crucial one as a textbook on statecraft for future rulers. For the effective governance and edification of the populace, the *Xiaoxue* 小學, *Oryun Haengsildo* 五倫行實圖, and *Hyangnye Happyeon* 鄉禮合編 (collection of compacts for self-governing villages) were the most important texts. However, a task that was very important both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was the monarch's collection of Zhu Xi studies 朱子學 texts for over 20 years and compilation of the best versions. Moreover, he planned to compile a complete edition of the *Zhuzi Quanshu* 朱子全書 in his late years. When King Jeongjo's academic tendency is summarized, he saw Zhu Xi studies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Philosophy, The Catholic Univ. of Korea.

as the highest learning and truth. This was not simply an academic question but was a question linked to the validity of the ruler's political power and power management. Because the validity of power was granted through the legitimacy of learning in Joseon, as a politician and the supreme commander, the monarch had no choice but to declare that Zhu Xi studies was the correct learning.

The compilation of immense documents and the plan to compile the *Zhuzi Quanshu* under King Jeongjo's rule constituted public declarations that the synthesizer of Confucianism, or the inheritor of the ideology's lineage, was the monarch himself. Indeed, he prided himself on having succeeded to the truth of Confucianism from the wise kings of the three ancient Chinese dynasties, Confucius, and Zhu Xi. King Jeongjo believed that he was capable of practicing the way of a teacher 師道 and the way of a ruler 君道 at the same time, that he could become a true ruler-teacher 君師. He held the belief that only monarchs could become true ruler-teachers. At the same time, he also had the conviction that he had become a ruler-teacher based on his learning and morality and therefore was capable of establishing *ji* 極, the standard of human life. While kings could become ruler-teachers by cultivating themselves academically and morally, scholar-officials, even if they performed the same task, could not necessary become kings. Consequently, King Jeongjo thought that, in the end, the only one who could bridge the gap between learning and politics, between knowledge and reality, was none other than himself.

Both King Jeongjo and contemporary Korean Confucians sought to find the validity of political actions or political power in the perfection of character or the completion of learning. In this respect, they can seem to have stressed morality and learning based on a theory of human nature or metaphysics rather than the uniqueness of politics or power itself. Furthermore, their attitude of pondering on political actions or political power in terms of the moral standard of the perfection of learning and character can be criticized as having caused, in the end, an absence of politics. It is because they held a perspective that reduced political issues to the theory of human nature or moralistic metaphysics and therefore were unable to ponder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politics.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olitical discourse of King Jeongjo's

times was reduced to normative ethics. This is because debates on human nature, which buttressed politics, drove the monarch and scholar-officials to engage unceasingly in debates on who was good or evil, what the differences were between sages and ordinary humans, and who was academically outstanding or negligible. Consequently, academic debates based on academic schools did not cease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In the political topography of this era,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centuries-old academic debates on character and levels of learning were in themselves extremely political. Seen thus, King Jeongjo's attitude of seeking to coordinate diverse academic traditions was not only extremely political but also can be seen as more than political instead. It is because he strove to demonstrate that his acts of coordination (arbitration) were not simply power struggles.

King Jeongjo styled himself not as someone fighting for political power but as an educator and a mentor. This was not an absence of politics but, instead, became a spark prompting one to ask back, "What is politics?" In the Confucian world of those who dreamed of the ruler-teachers of the three ancient Chinese dynasties—both the king and scholar-officials—though learning and politics aimed at each other and sought to be united, discrepancies between learning and politics and conflict between morality and politics had become an inevitable reality. Though King Jeongjo styled himself a ruler-teacher, he was but just only a hereditary monarch and a being whose morality had to be tested constantly. As a result, learning and politics invariably had to take the risk of severance and discontinuity in a Confucian society. In this respect, academic debates during the Joseon Dynasty can be said to have functioned, instead, as a catalyst leading one to ask back, "What should politics indeed be?"

Key Words: King Jeongjo 正祖, a true ruler-teacher 君師, Zhu Xi studies 朱子學, the Hongjae Jeonseo 弘齋全書, Gyeongsa Gangui 經史講義 (records of academic seminars on Confucian classics and East Asian histories between King and his ministers), the Daehak Yuui 大學類義